

다문화 공생의 현주소: 한국 그리고 일본

도요즈미 말시아 (豊住マルシア)

요코하마 '생명의 전화' 외국어 상담 코디네이터

와타도 이치로 (渡戸一郎)

메이세이대학 인문학부 도시사회학 교수

배중도 (裴重度)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 관장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를 반영하여 '다문화 공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각기 다른 레벨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공생' 담론이 사회적으로 표면화 된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논의, 일본 정부의 대책 그리고 민간 단체의 움직임 등 여러 영역에서 '다문화 공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공생' 담론을 접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생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1) 도요즈미 마르시아: “재일 브라질인 부모의 노동과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하여”

* 브라질인 집주 도시 (도요타시)에서 발생하는 브라질인 아동의 교육 문제는 부모의 노동 패턴과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브라질인 아동들이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나가와현 구리하마 소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감동이 별도로 마련)

* 일본 미디어는 이러한 문제를 ‘외국인=범죄’라는 공식 등을 사용하여 매우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2) 와타도 이치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동향과 과제”

* 외국인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 ‘제1차 논쟁’에서 2000년대 ‘제2차 논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전개 되어 왔다.

* ‘개국이나 쇄국이나’라는 논의에서 ‘선택적인 이민의 수용’으로 전환, 통합적인 정책을 지휘할 사령탑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방 자치체와 NGO의 활동도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응급 대책’에서 ‘지원, 참획의 정책’ 그리고 ‘다문화 공생의 통합’으로 변해 왔다.

(3) 배중도: “다문화 공생의 지역 사회를 향하여”

- * 지역 사회에 있어서 외국인의 보금자리로서 ‘후레아이관’이 탄생하였다.
- * ‘후레아이관’과 같은 시설을 만들려는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있으나 내실을 갖춘 것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

일본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 된다. (1)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대상은 다르지 않은가? : 일본의 경우 닛케이진, 한국의 경우 국제 결혼 가정인 듯한 인상을 준다. (2) 외국인을 지원하는 NGO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 : 요코하마 생명의 전화의 경우 부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